

김시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제패

역대 최연소 우승·PGA 투어 통산 2승... 2011년 최경주 이후 한국인으로 두 번째 우승 차지

김시우(22·CJ대한통운)가 '제5의 메이저대회'라 불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105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이자 PGA 투어 통산 2승째를 거둔 김시우는 2011년 최경주(47)에 이어 한국 선수이자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김시우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레이크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 코스(파72·721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잡아내며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시우는 이날 흔들림없는 플레이로 공동 2위 이안 풀터(잉글랜드)와 루이스 우스투아젠(남아공)을 3타 차로 꺾고 정상에 오르며 시즌 첫 승이자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 이후 9개월 만에 통산 2승째를 달성했다.

총 상금만 1050만 달러(약 118억원)가 걸려 있어 '제5의 메이저대회'라고 불리는 이 대회에서 지난 2011년 최경주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우승이다.

이로써 김시우는 189만 달러(약 21억4000만원)의 우승상금을 수확하며 단숨에 시즌 상금을 234만6599달러(약 26억5000만원)로 늘렸다.

특히 김시우는 만 21세의 나이로 정상에 올라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됐다. 종전 기록은 지난 2004년 아담 스콧(호주)이 우승할 때 세운 만 23세였다.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투어 첫 정상에 올랐던 김시우는 9개월만에 통산 2승 달성에 성공하며 한국선수로는 최경주(8승), 양용은(2승), 배상문(2승)에 4번째 멀티 우승자가 됐다.

김시우는 이날 절반에만 3타를 줄인 뒤 후반 난이도 높은 홀에서 안정된 경기력과 정확한 숏게임으로 파행진을 하며 여유 있게 우승했다.

우스투아젠과 함께 챔피언즈 바로 앞에서 경기를 시작한 김시우는 1번 홀(파4) 약 5.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선두그룹과 격차를 1타 차로 좁혔다.

공동 선두로 출발한 J.B. 호즈와 카일 스탠리(이상 미국)가 나란히 1번 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김시우는 곧바로 리더보드 최상단에 이들과 나란히 했다.

이후 김시우는 안정된 경기로 파세이브를 이어가다 7번 홀(파4)에서 약 7.5m 중거리 버디 퍼트를 넣으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어 전반 마지막 9번 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이 벅커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이날 경기 3번째 버디를 낚아 2위와 격차를 벌리는데 성공했다.

호즈와 스탠리 모두 뜰쭈늘쭈늘한 경기로 우승 경쟁에서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김시우(22·CJ대한통운)가 15일(한국시간)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풀터가 11번 홀까지 버디 3개를 잡아내며 김시우의 경쟁자로 나섰다.

하지만 풀터가 12번 홀(파4)에서 첫 보기를 범하며 김시우와 격차는 2타 차로 됐다. 김시우는 풀터의 추격에도 큰 실수 없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기를 했다. 후반 들어 연속해서 파행진을 벌이며 풀터와의 격차를 유지했다.

많은 선수들이 고전한 '하일랜드 그린' 17번 홀(파3) 역시 티샷을 호수 한 가운데 그린 위에 올리며 파에 성공, 우승을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김시우는 악명 높은 이 홀에서 4일 동안 한 번도 그린을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 가장 난이도가 높은 18번 홀(파4)에서 먼저 경기에 들어간 풀터가 발타를 받고 보기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김시우와 3타 차로 됐다.

한결 여유가 생긴 김시우는 까다로운 18번 홀을 파로 막으며 후반 9개홀 모두 파세이브에 성공, 우승을 확정했다.

김시우는 지난해 7월 '비바슬 챔피언십' 준우승에 이어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는 등 화려한 데뷔 시즌과 함께 PGA 투어를 이룰 차세대 주자로 꼽혔다.

올 시즌 기대와 달리 첫 대회인 'CMB 클래식' 공동 10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직전 출전한 '취리히 클래식'에서도 컷 탈락하는 등 18개 대회에 출전 3차례 기권 등 절반이 넘는 10개 대회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

하지만 메이저대회에 버금가는 큰 대회에서 최정일 완벽에 가까운 경기로 통산 2승째를 차지하며 그간의 부진을 완전히

떨칠 수 있게 됐다.

풀터와 우스투아젠이 7언더파 281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스탠리가 라파 카르레라 베요(스페인)와 6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올랐다.

노승열(26·나이키골프)이 버디 6개와 보기 5개로 1타를 줄이며 함께 이븐파 288타로 공동 22위로 선전했다.

강성훈(30)도 버디 4개를 하는 동안 보기 1개와 더블 보기 1개로 막고 1오버파 289타로 공동 30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은 최종일 4타를 줄이며 선전, 공동 12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지만 랭킹 2위 로리 맥길로이(아일랜드)와 랭킹 3위 제이슨 데이(호주)는 각각 공동 36위, 공동 60위로 부진했다.

/김민근기자



김현수, 9경기 만에 선발출전... 1안타 1볼넷 기록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가 9경기 만에 선발출전 기회를 잡아 안타를 만들어냈다.

김현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 좌익수 겸 6번타자로 선발출전, 2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지난 5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안타를 친 이후 열흘 만에 안타를 추가했다.

지난 6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선발출전한 이후 9경기 만에 선발로 나왔다. 그 기간 동안 타석에 나선 것은 겨우 한 차례였다.

김현수는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를 기록해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시즌 타율은 0.234로 올랐다.

김현수는 2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나와 캔자스시티 선발 크리스 영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뽑아냈다.

4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김현수는 5회 볼넷을 골라냈다. 그러나 후속타 발발로 역시 득점에는 실패했다.

김현수는 7회 타석에서 교체됐다. 볼티모어는 8-9로 석패했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2위 볼티모어는 4연패의 수렁에 빠져 시즌 22승4패를 기록했다.

한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와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결장했다.

/김민근기자

V-리그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영입 발표

'우승팀' IBK기업은행을 떠나 '꼴찌팀' 한국도로공사로 향한 박정아(24)는 자신의 행보를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5일 자유계약선수(FA) 박정아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연봉은 2억5000만원이다.

IBK기업은행 창단 멤버로 세 차례 우승을 모두 함께한 박정아는 처음으로 다른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됐다.

박정아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팀을 옮기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보고 싶었다"면서 "팀의 우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격력이 좋은 박정아의 영입으로 강한 센터진과 더불어 다양한 공격전술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문 한국도로공사는 우승 DNA를 갖춘 박정아의 합류로 대권 도전을 꿈꿀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서도 전체 1순위로 이바나 네소비치까지 데려와 내년 시즌 우승후보로 급부상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